

내 신체에 감사하는 것이
자신을 더 사랑하는 열쇠임을
비로소 깨달았습니다.

오프라 윈프리



내 신체에 감사하는 것이 자신을
더 사랑하는 열쇠임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.

내 신체에 감사하는 것이 자신을
더 사랑하는 열쇠임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.

내 신체에 감사하는 것이 자신을
더 사랑하는 열쇠임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.

내 신체에 감사하는 것이 자신을
더 사랑하는 열쇠임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.